

칼럼

장기채 주필



봄이 오는 소리

겨울의 끝자락이다. 봄의 길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끈질긴 한파는 내일(9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다. 봄꽃들의 화려한 외출, 이른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싶다.

겨우내 거친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동백 꽃봉오리들은 어느새 낙엽처럼 깔려 버렸고, 최남단 제주도 성산에는 봄기운 한껏 맞은 유채가 꽃을 피울 것이다.

곧 남도 땅은 노란 물결로 뒤덮인다. 겨울 속에는 봄이 숨어 있는 것일까. 아무리 극한 겨울 속에도 봄은 내일을 숨 쉬고 있는 것일까.

한평 자연생태공원에는 성급한 복수초가 꽃망울을 터트리고, 순천 매곡동에는 홍매화가 꽃을 피울 것이다.

말리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 수목원에는 내일 모래면 '납매'가 활짝 필 것이다.

음력 12월을 뜻하는 한자 납(臘)과 매화를 뜻하는 매(梅)가 붙여져 생긴 이름이다.

언뜻 보기에는 매화와 비슷한

예쁜 꽃이다. 한 겨울 추위를 견디고 나온 귀한 꽃이라는 뜻에서 '한객(寒客)'이라는 애칭도 붙여진 그런 꽃이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이다. 서민들은 언제나 이 어려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입춘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봄이 오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열을 밑으로 불 흐르는 소리가 들리니 마음은 정녕 봄이 오고 있는 느낌이다.

겨우내 사람을 들뜬 마음으로 북두칠성을 밤하늘에서 찾아보는 여유를 가져보자.

예나 지금이나 봄은 늘 상서로운 기운과 아우러져 부른 희망으로 차오르게 했다.

그러나 그동안 을 돌아보면 혹독한 겨울이었다.

겨울의 깊은 곳을 건너왔다. 바람은 아직 차갑지만 분명 봄으로 가는 첫 이정표다.

이 좋은 시절에 국민은 아직도 죽을 맛이다. 더 큰 문제는 얼마나 더 이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야 할지 까마득하기만 하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돈 들어갈 곳도 많은 2월인데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해마다 늘고 있어 안타까운 소식이다.

최근 두 달 사이 10%포인트 주가 하락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 원인으로 정책혼선과 과거 집착을

꼽는다. 꺾림·리얼미터·리서치뷰 등은 "최저임금 압호화폐, 병창출입법 남북 단일팀 논란 등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그때도 어찌 하겠는가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김운(吉運)을 바라는 마음들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천운발원(天運發願)하며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소망을 기원하는 문구를 써 붙이기도 한다.

오는 16일은 민족의 대명절 설이, 19일은 새싹이 난다는 우수다. 우수(雨水)는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불이 된다는 뜻으로, 이는 곧 날씨가 풀려 따뜻해짐을 의미한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는 숫자들이며 하찮게 생각하는 농업, 농촌, 농부에 대한 생각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시골과 먹을거리 서민의 장바구니 현장을 생생 가득한 곳으로 되살려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가을이 와도 모두 이 겨울처럼 침묵할지 모른다.

社說

군인 주거여건 개선 서둘러야

국방부가 군 관사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직업군인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시행에 나섰다니 기대가 크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와 주택관리공단이 육군 1군단 지역 주거시설 위탁관리 수행을 위한 '주거지원센터'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의 군 관사에 설치되는 주거지원센터는 1군단 관사 2천100여 세대와 간부 숙소 8천400여 실의 시설 관리, 입·퇴거, 관리비 수납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국방부는 1군단 주거지원센터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군인과 군무원이 해운군 주거시설 관리 업무의 민간 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관리방식 개선을 통해 주거시설의 품질 향상은 물론 군인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병력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는 군인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전세금 지원 방안도 손보기로 했다. 군부대 주변 전세시세를 고려해 전세금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반전세·월세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획일적인 기준의 지원 방식을 탈피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권역별 주거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직업군인 주거여건 개선은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이 집 걱정 없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군인 주거 지원 제도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玉 出 崑 岡 (Yuk-chu-kung-ang)
구슬 옥 崑 岡 (Kung-ang)
출처 崑 岡 (Kung-ang)
산등성이 강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 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박수지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따뜻한 보훈'과 새로운 시작

국가보훈처는 2017년 5월 파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취임한 이래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을 추구하고 있다.

전남서부보훈지청 또한 작년 10월 김종술 지청장의 취임 인터뷰에서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해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활기찬 2018년을 맞이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앞서 말한 현장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그리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 이상 세 가지의 큰 줄기를 가지고 세부적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보훈나눔플랫폼 사업을 도입하여 고품격 독거세대, 생계곤란 가구 등 취약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한다.

또한, 현재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 및 노인 부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훈 서비스'를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서부보훈지청에서는 지역 특성상 복지사각지대인 도서벽지에 사는 보훈가족들에게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가족 두드림사업 등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지 못한 고품격의 보훈가족을 위한 리마인드 웨딩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국가보훈처는 미래지향적 보훈을 위해 미래를 대비한 중장기 계획으로 '국가보훈 5개년 발전계획' 등을 수립 중이다. 이에 3.1운동 등 굵직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세

밀하게 계획되어있는 보훈행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제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는 내년 2019년에 100주년이 되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일 기념사업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월말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하고 있다.

한편, 전남서부보훈지청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중장기 계획에 발맞추어 '독립-민주-호국'을 주제로 균형있는 보훈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로써 전남서부지역 주민들이 규모 있는 국가적인 행사 이외에도 나라사랑정신을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2018년 '따뜻한 보훈' 정책을 통해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전남서부보훈지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기대해 본다.

Advertisement for 'Hwaungseong' (화웅성) featuring a woman and a man.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rol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ore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undation (한국인본진흥재단).